

# 해외 보험사의 화석연료 제한 정책과 국내 보험사의 과제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엘레오노라 파산 (Eleonora Fasan) 기후솔루션 연구원



# 해외 보험사의 화석연료 제한 정책과 국내 보험사의 과제

## 1. 배경 및 요약

인간 활동에서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홍수, 화재, 폭염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석연료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3 실무그룹은 2022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 기업과 이들의 조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는 오랫동안 화석연료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보험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주요 투자자인 동시에 보험인수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험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재해 발생 증가는 보험사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인슈어런스 바나나 스킨 2021(Insurance Banana Skin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업계는 기후변화를 제1의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재)보험사들은<sup>1</sup>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산운용과 보험인수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최소 41개 (재)보험사가 석탄과 관련한 보험인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는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최소 13개 보험사가 석유와 가스 생산에 대한 보험인수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요컨대 탈석탄에서 나아가 탈화석연료로 정책 기조를 확대, 수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정책을 평가해 온 비정부기구(NGO) 연대체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 이하 IoF)'의 2022년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보험사들의 탈화석연료 정책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이 국내 (재)보험사의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보험업계에 제안한다.

---

<sup>1</sup>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을 말한다.

## 2. 해외 보험사 정책 사례

IoF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보험인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는 독일 알리안츠(Allianz)이다. 자산운용 즉, 투자 제한 정책에 있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회사는 프랑스 재보험사인 스코리(Scor RE)이다. 아래에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보험인수 및 투자 제한 정책의 모범 사례를 각각 상위 5개씩 소개한다.

악사(AXA), 액시스캐피탈(Axis Capital), 스위스리(Swiss Re) 등 주요 글로벌 (재)보험사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공식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해 2030년까지 OECD 국가 내에서 석탄에 관한 보험인수 및 투자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도 석탄과 관련한 사업을 끝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sup>2,3,4,5</sup>

### 보험인수 정책

#### 석탄 (알리안츠, 악사, 액시스캐피탈, 취리히, 스위스리)

세계 최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Allianz)는 석탄 광산과 발전소, 석탄 가치사슬과 관련한 인프라(철도, 항만, 도로 등) 프로젝트 등에 대한 건설 및 운영 보험 제공을 중단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재산 및 손해 보험을 제공함에 있어 ▲전체 매출 혹은 전력 생산량의 25%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 ▲신규 석탄 발전소 혹은 신규 석탄 광산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 ▲석탄 발전용량이 5GW 이상이거나 석탄 채굴량이 1,000만 톤 이상인 기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알리안츠는 이 같은 석탄 기업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2025년 말까지 매출 혹은 전력 생산량에 따른 석탄 기업의 기준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늦어도 2040년까지는 그 기준을 0%로 만들 계획이다.<sup>6</sup>

프랑스 보험사 악사는 2017년부터 석탄 광산 및 발전소의 재산 및 건설(Property and Construction)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악사, 액시스캐피탈, 취리히(Zurich)도 석탄의 사업 비중 제한 기준을 전체 매출 또는 발전량의 30%(악사, 취리히) 혹은 20%(액시스캐피탈 - 신규 및 임의재보험<sup>7</sup>)로 비슷하게 설정했다. 사업 규모 관점에서의 제한 기준은 석탄 채굴량 연간 2,000만 톤 이상이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신규 석탄 생산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고, 기존 석탄 사업의 보증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sup>8,9,10</sup> 취리히는 화석연료 제한 정책의 대상이 된 292개 기업의 3년 이내 에너지 전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2021년 기준으로 명확한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 계획을

<sup>2</sup> [Insure our Future, 2022 Scorecard on Insurance, Fossil Fuels and the Climate Emergency, October 2022, p30](#)

<sup>3</sup> [AXA, AXA's New Climate Strategy Sets the Bar High, 27 November 2019](#)

<sup>4</sup> [Axis Capital, Fossil Fuel Policy](#)

<sup>5</sup> [Swiss Re, We Are Accelerating Our Race to Net Zero, 5 March 2021](#)

<sup>6</sup> [Allianz, Statement on coal-based business models, 9 February 2023](#)

<sup>7</sup> 임의재보험이란 보험사가 개별 위험에 대해 드는 재보험이다.

<sup>8</sup> [AXA Group, 2022 Climate and Biodiversity Report, June 2022, p30](#)

<sup>9</sup> [Axis Capital, Fossil Fuel Policy](#)

<sup>10</sup> [Zurich, Zurich signs up to UN business pledge to limit global temperature rise and announces it will use only renewable energy by 2022, Media Release, 25 June 2019](#)

마련한 19%의 기업과는 계속 거래하고 있다.<sup>11</sup>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는 2030년까지 OECD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204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도 석탄 관련 사업을 제외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특약재보험<sup>12</sup>을 탈석탄 계획에 포함하는 최초 사례다<sup>13</sup>. 스위스리는 또한 완전한 탈석탄 이행을 이룰 때까지 석탄 관련 사업 비중이 30% 이상인 모든 기업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직접 및 임의재보험을 제외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석탄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외하는 기업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탈석탄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sup>14</sup>

### 석유 및 천연가스 (아비바, 하노버리, 뮌헨리, 알리안츠, 스위스리)

아비바, 하노버리, 뮌헨리, 알리안츠, 스위스리 등 5개 (재)보험사들은 상류와 중류 부문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망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도 제한 정책을 두고 있다. 아비바는 신규 화석연료 채굴 및 추출 사업과 해상 굴착 장비와 플랫폼 건설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sup>15</sup> 하노버리는 늦어도 2038년부터는 석탄 광산 및 발전소에 대한 재산 및 상해 재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부터는 공급망의 상류와 중류 부문 신규 사업에 대한 임의재보험 심사 시 개별 리스크(individual risk)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sup>16</sup> 뮌헨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 신규 천연가스전,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석유 발전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2023년 도입했다. 공급망 중류 부문 인프라의 계획, 자금 조달,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보증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sup>17</sup> 알리안츠도 2023년부터 신규 석유 및 천연가스전 탐사와 개발, 오일샌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규 석유 인프라 및 석유 발전소에 대한 재산 및 상해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sup>18</sup> 스위스리도 마찬가지로 2022년 이후 신규 석유 및 천연가스전 재보험을 제한하고 있다.<sup>19</sup>

사업 비중 관점에서 아비바는 매출의 5% 이상을 화석연료 추출로부터 얻는 기업을 제한한다. 알리안츠는 재산 및 상해(P&C) 보험인수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오일샌드가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제한 대상이며, 2025년 이 비중 기준을 10%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재)보험사들은 심해(deepsea)와 북극(AMAP)의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 관해서도 다양한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노버리의 경우, 북극에서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거나 수심 1,524m 이상의 심해에서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제한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 1 - a/b로 분류된 보호지역, 람사르 협약에 따른 보호 습지, 또는 세계 문화유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뮌헨리는 특약재보험, 임의재보험의 제한 대상에 북극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했다.<sup>20</sup>

<sup>11</sup> [Zurich, Zurich Insurance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1, p27](#)

<sup>12</sup> 특약재보험이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계약의 범위, 책임한도액 등 약정을 맺고 하는 재보험 계약 방법이다. 의무재보험, 자동재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의재보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계약으로 평가 받는다.

<sup>13</sup> [Swiss Re, Swiss Re announces ambitious climate targets; accelerates race to net zero, Press release, 16 March 2021](#)

<sup>14</sup> [Swiss Re, ESG Risk Framework](#)

<sup>15</sup> [Aviva, Aviva ESG Baseline Underwriting Statement, December 2021](#)

<sup>16</sup> [Hannover Re, Annual Report 2021, p74](#)

<sup>17</sup> [Munich Re, New Oil & Gas investment/underwriting guidelines, Statement, 6 October 2022](#)

<sup>18</sup> [Allianz, Statement on oil and gas business models, 9 February 2023](#)

<sup>19</sup> [Swiss Re, Sustainability Report 2022, p21](#)

<sup>20</sup> [Munich Re, Munich Re approach to fossil fuel in underwriting and investment, p3, 6 October 2022 \(Updated 2 April 2023\)](#)

알리안츠도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극 및 심해와 관련한 신규·기존 사업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sup>21</sup> 또 남극 지역, 석탄층 메탄가스(CBM), 초중질유 및 오일샌드에 대한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스위스리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극에서의 생산량이 10% 이상 차지하는 사업 및 기업을 배제한다. 그리고 2023년부터 탄소집약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기업의 상위 10%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보험 포트폴리오에 '2050년 넷제로(net-zero)'를 충족하는 사업만 포함기로 했다.

## 투자 정책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제한 및 회수 조치는 보험인수 제한 정책과 함께 보험사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석탄 (알리안츠, 약사, 액시스캐피탈, 스코르리, 제네랄리)

알리안츠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보험인수에 있어 석탄 기반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 제한 정책을 적용한다. 또한, 전체 매출 및 발전량 가운데 25%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40년에는 0%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석탄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sup>22</sup>

스코르리와 제네랄리(Generali)도 알리안츠와 같이 석탄발전 용량 5GW와 연간 석탄 채굴량 1,000만 톤을 제한 기준 사업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sup>23,24</sup>

약사는 일반 계정(General Accounts) 및 완전 통제형 단위 연동 자산(Unit Linked Assets in fully controlled mandates) 정책을 설정했다. 석탄 매출 비중 30% 이상, 또는 석탄 생산량 2,000만 톤 이상의 광산 기업, 발전량 비중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이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의 30%, 또는 10GW 이상의 발전용량이 석탄과 관련된 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다. 또한 주요 신규 석탄 자산을 개발하는 석탄 산업의 파트너인 제조사 및 항구 및 철도 등 인프라 사업사에도 투자하지 않는다.<sup>25</sup>

액시스캐피탈과 제네랄리는 전체 매출 및 발전량의 20% 이상이 석탄과 관련된 경우, 석탄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에서 제한한다. 스코르리는 그 기준을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액시스캐피탈은 2025년 말까지 석탄기업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sup>26</sup> 제네랄리는 단계적으로 제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재)보험사는 또한, 현 시점에서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다. 알리안츠는 신규 석탄을 계획하는 공익사업, 광산, 서비스 기업 등을 제외한다. 약사와 제네랄리는 생산량 기준으로 300MW의 석탄 확장을 계획하는 발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액시스캐피탈과 스코르리는 석탄발전소, 광산 또는 전용 인프라와 같은 석탄 관련 프로젝트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를 배제

<sup>21</sup> Allianz, Statement on oil and gas business models, p4, 9 February 2023

<sup>22</sup> Allianz, Statement on coal-based business models, 9 February 2023

<sup>23</sup> SCOR Re, Sustainable Investment Policy, October 2022, p16

<sup>24</sup> Generali, Generali Group Strategy on Climate Change, Technical Note, June 2021, p4

<sup>25</sup> AXA, AXA Group 2022 Climate and Biodiversity Report, June 2022, p29

<sup>26</sup> Axis Capital, Fossil Fuel Policy

한다. 특히, 스코르리는 2017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이름을 올린 상위 12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sup>27</sup>

### 석유 및 천연가스 (스코르리, 제너랄리, 악사, 스위스리, 아비바)

스코르리는 우르게발트(Urgewald)의 세계 석유 및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Oil and Gas Exit list)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한 정책을 설정했다. 생산량의 20% 이상을 수압파쇄(fracking)<sup>28</sup> 또는 심해나 북극에서 추출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총 생산량의 10% 이상을 석탄층 메탄(CBM), 또는 오일샌드나 초중질유에서 얻는 기업도 투자 배제 대상이다.<sup>29</sup>

제너랄리는 공급망 상류 부문에서 수압파쇄를 하거나 북극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해 기존 투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배제한다. 타르샌드(Tar sand)의 경우에는 매출의 5% 이상을 직접 타르샌드로 창출하는 기업, 관련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 및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수압파쇄 또는 북극 지역에서의 탐사 및 생산이 매출의 10%을 이상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배제한다. 또한, 자사의 포트폴리오(채권, 상장사 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25% 줄이고,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30%를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탈탄소 경로에 맞춰 조정한다.<sup>30</sup>

악사의 경우에는 공급망 상류의 기업 및 유전 서비스, 공급망 하류와 중류 부문 대부분의 기업이 선진 시장에 상장한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모든 신규 직접 투자를 중단했다. 악사는 전 세계 오일샌드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 오일샌드로 매출의 20% 이상을 기록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또한 북극 지역의 생산량이 기업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 세계 북극 기반 생산 총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수압파쇄, 셰일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한 기업(생산량 비중 30% 기준)도 제외한다. 투자 제한 정책은 악사의 일반 계정 상장 주식 자산에 즉시 적용되며, 관련 회사채에 재투자하지 않는다.<sup>31</sup>

스위스리는 공급망의 상류 부문 또는 석유전 설비 및, 하류 부문의 각 분야 또는 중류 부문의 대부분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배제한다. 또한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극에서의 생산량이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사업 및 기업을 제외한다.<sup>32</sup>

마지막으로 아비바는 투자의 탄소 집약도를 2025년까지 25% 절감, 2030년까지 60%로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업의 탈탄소를 위한 기후 참여 증대 프로그램(Climate Engagement Escalation Programme)을 제공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다.<sup>33</sup>

<sup>27</sup> [SCOR Re, SCOR has expanded its insurance and facultative reinsurance underwriting exclusion list to include the construction of new coal-fired power plants, irrespective of the technologies, the construction, and quality of the coal, 30 April 2019](#)

<sup>28</sup> 수압파쇄(프래킹)은 셰일암에서 가스와 석유를 회수하는 기술로, 땅을 뚫고 물, 모래, 화학 물질의 고압 혼합물을 암석층에 분사하여 암석 내부에 포집된 가스를 방출한다.

<sup>29</sup> [SCOR Re, Sustainable Investment Policy, October 2022, p16](#)

<sup>30</sup> [Generali, Generali Group Strategy on Climate Change, Technical Note, June 2021, p6,8](#)

<sup>31</sup> [AXA, AXA Group Energy Policy Focus on Oil and Gas Industry, 29 October 2021](#)

<sup>32</sup> [Swiss Re, Sustainability Report 2022, p38](#)

<sup>33</sup> [Aviva, Taking Climate Action, 1 March 2021](#)

### 3. 국내 보험사 정책 현황

국내 보험사 가운데서는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의 화석연료 정책을 살펴본다. 코리안리는 아시아 2위 규모 재보험사이자 국내 유일 재보험사이고, 삼성화재는 운영자산 기준으로 국내 최대의 손해보험사다.<sup>34</sup>

#### 코리안리

코리안리는 2022년 11월 30일, 2023년부터 국내외 석탄 채굴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투자 및 임의재보험 인수를 중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발표했다.<sup>35</sup> 하지만 이 정책은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에 “국가 에너지 정책, 사회적 약자 및 저개발국가 지원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예외”의 경우 석탄 관련 사업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는 예외 조건을 달고 석탄 운영보험 중단 정책 등이 빠진 한계 때문이다. 스위스리도 비슷한 예외 조항을 갖고 있지만 조건이 더 명확하다. 전력 생산량의 7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중위 또는 저소득 국가에 관한 재보험거래의 경우, 피보험자가 효과적인 배출 감소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2018년 전부터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2025년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코리안리의 탈석탄 정책은 또 특약재보험 및 진행 중인 석탄 사업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한계가 있다. 해외 재보험사들이 석탄을 넘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한 정책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종합적인 기후 리스크 관리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2022 ESG 보고서<sup>36</sup>에서 최근 년도 매출에서 석탄 발전 및 채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및 사업을 ‘석탄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을 ‘신규 투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인수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보험과 운영보험의 신규 인수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다만, 삼성화재는 한국전력과 그 발전 자회사처럼 공공성을 가진 모든 회사, 혹은 사업을 이 정책의 예외로 인정한다.<sup>37</sup>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는, 오일샌드, 셰일오일·가스, 북극석유·가스, 심해 석유·가스 등의 비전통적 석유와 가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투자 및 보험인수도 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 기관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석탄에 대한 ‘신규’ 보험인수 및 투자에 대한 정책만 수립한 한계가 있다. 기존 운영보험을 제한하는 정책이 부재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같이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화석연료 제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코리안리와 삼성화재는 이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인수 제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보험사들의 공백을 메우며 여러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38</sup> 코리안리와 삼성화재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재보험사 삼성리(Samsung Re)는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

<sup>34</sup> 통계청, 손해보험 운용자산 내역(일반계정)

<sup>35</sup> 코리안리, 코리안리 탈석탄 금융 선언문, 2022년 11월

<sup>36</sup> 삼성화재, 2022 ESG 보고서, p86

<sup>37</sup> 삼성화재, ESG Policy, July 2022, p48

<sup>38</sup> 인슈어 아워 퓨처 & 기후솔루션, 폭로: 최후의 보루로 남은 석탄 보험사, 2022년 6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 4.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탈탄소 정책 제언

기후 리스크를 억제하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보험사들이 파리 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에 코리안리와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보험사들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1.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신규 프로젝트 및 확대에 대한 보험인수를 즉시 중단한다.
2. 신규 석탄발전소 및 광산뿐만 아니라 석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손해보험의 보험 중단 정책을 명확히 한다. 특히, 운영보험 중단 정책을 세운다.
3.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화석연료 부문 신규 고객에 대한 보험 가입을 즉시 중단한다. 또한 기존 고객이라도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면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4.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의 위탁 관리 자산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산을 즉시 매각한다.
5. OECD 국가에서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 투자 및 보험인수를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한다. 이 정책은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1.5°C 경로에 부합해야 한다.
6. 재보험사의 경우, 특약재보험을 포함하는 화석연료 중단 정책을 도입한다.
7.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내용을 문서화하는 요건을 정책에 포함한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강력한 실사 및 검증 메커니즘을 즉시 수립해 정책에 반영한다.

문의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 [sooyoun.han@fourclimate.org](mailto:sooyoun.han@fourclimate.org)

**엘레오노라 파산(Eleonora Fasan)** 기후솔루션 연구원 / [eleonora.fasan@fourclimate.org](mailto:eleonora.fasan@fourclimate.org)